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5550.30 (+16.53)		751.69 (-12.41)
	금리 (연) (0.037)		환율 (원/달러) (+0.10)
	3.803		1324.70

‘불황의 그림자’ 채무조정 수요 지속

폐업·연체 자영업자 확대
새출발기금 월 5165명 신청
올해 누적 신청인원 22만명
채무조정 신청액 35조 달해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대출 부담에 고금리·고물가로 비용 압박까지 겹치면서 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매달 5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이어지고 있다.

◆ 월 평균 5000명 ‘새출발기금’ 신청

25일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캠프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는 월 평균 51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2월의 월 평균 신청자인 5918명과 비교해 약 12.8% 줄었으나, 새출발기금 운영 초기인 2023년의 월 평균인 3107명과 비교해선 여전히 66%나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왕후닝 중 주석과 악수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 라오닝성 단둥의 함미원조기념관을 방문해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 라오닝성 단둥을 방문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하 연체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한 금리 인하를 제공하며,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는 ‘대입형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및 이자 감면을 제공한다.

새출발기금은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을 포함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2024년 9월 이후 코로나19 피해 요건을 삭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22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액은 35조원에 달했다.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의 한 관계자는 “2025년 10월 4차 제도개선 이후 신청자 평균은 5540명 수준으로, 올해 신청자 수가 특별히 감소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정도의 감소로 보긴 어렵고, 새출발기금의 수요는 여전히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불황’…자영업 폐업 급증

새출발기금의 수요가 이어지는 것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새출발기금은 폐업 사업자를 부실우려 차주로 지정해 대입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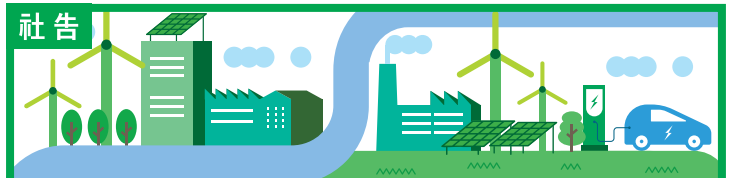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자영업자의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래 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창업 건수는 47만3000건을 기록해 폐업이 창업보다 1.32배 많았다. <3면에 계속>

/안송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글로벌 에너지경쟁 우위 확보 해법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발전원 다변화 등이 국가적 과제가 됐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부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 공급망 고도화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찾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과제를 진단하고 전후방 산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을 개최합니다. 정부와 산업계, 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인사이트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명 : 2026 에너지인프라 포럼

◆주 제 : ‘대체불가 K-에너지’ : 초격차 기술력과 공급망 구축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14:00~17:00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11호

◆주 최 : 국회의원 안후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연구원, 메트로미디어

◆후 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 2026 에너지인프라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올해 평균수익 -36% 개미 ‘필패 법칙’ 확인

韓중시 매수 톱10 평균수익률
외국인 수익 -14%, 기관 4%
개인 10개 종목 모두 마이너스
외국인은 6개, 기관 4개 불과

하반기 들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주춤하다. 그나마 매수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리고 있지만, 투자 성적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개미 필패’ 법칙이 다시 확인됐다는 말도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7797억원 순매수)의 평균 수익률은 -36.30%였다. 개인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외국인(-13.71%)과 기관(4.26%)이 담은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목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9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했다. 개인 순매수 1위인 삼성전자(-48.63%)를 비롯해, 삼성전자(-35.48%)와 삼성전자우(-20.80%), SK하이닉스(-51.81%), 현대차(-40.30%), 두산에너빌리티(-31.57%), 효성중공업(-45.40%), 두산(-35.17%), 한화오션(-44.87%) 등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나았다. 외국인과 기관 이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중 마이너스 수익률은 각각 6개, 4개씩이 었고 나머지는 플러스였다.

외국인은 우리금융지주(9382억원) 가장 많이 사들고, LG이노텍(6407억원)·대한항공(4270억원)·SK이노베이션(4146억원)·마테이넷증권(3529억원)·한국금융지주(3408억원)·신세계(3171억원)·기아(3144억원)·삼성E&A(3072억원)·HMM(3038억원)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3면에 계속>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m-커버스토리

역대급 실적에도 적자… 빅테크 ‘AI칩 기술자립’ 사활

엔비디아 의존 낮추기

GPU 엔비디아 점유율 92%
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AI칩 개발로 비용절감 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자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인프라의 최상위 포식자인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ICT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다수가 엔비디아가 개발한 AI 칩을 사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소버린 AI 거대언어모델 연구보고

서’를 통해 엔비디아 칩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2.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GPU 서버로 구성된 랙 한 대당 가격은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을 기준 약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기가와트(GW)급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면 대규모 랙을 공급 받아야 한다. 일례로 정부와 SK그룹이 주도하는 국내 메가 프로젝트 투입 예산만 보더라도 15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은 약 1000조원에 달한다.

전문학적인 AI 인프라 구축 비용은 빅테크들의 수익성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메타는 올해 3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

성하고도 잉여현금흐름(FCF)이 상장 후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다. 오픈AI의 영업손실은 직전 분기에 수십조 원 단위로 불어난 상황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지출도 부담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올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설비투자(캐팹ex) 급증으로 현금흐름은 적자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설비 투자 영향으로 올해 회계연도 4분기 자본지출이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폭증했다.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한 전용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다. 메타는 최근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통해 4세대 칩 ‘아이리스’ 생산을 시작했다. 페이스

북과 인스타그램의 AI 알고리즘 등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오픈 AI는 첫 자체 맞춤형 AI 칩 ‘할라페노’를 선보였다. 추론 비용을 최대 절반 가량 아낄 수 있다.

AWS는 연산 성능을 높인 ‘트레이니움 4’ 개발에 성공해 기업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MS도 차세대 AI 가속기 마이어 300을 공개했으며, 빅테크 기업 중 가장 먼저 칩 양산에 나선 구글은 현재 추론에 특화된 8세대 TPU까지 개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내년 초 출하부터 차세대 AI 칩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한다.

/조민선 기자 msjo@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에 잠정 결론…청년 여론·제도 미비 등 고려

▲김민석, ‘YS 오른팔’故최형우 조문…“여야 민주화 뿌리 성찰해야”

/사진 뉴시스

▲주진우 “22대 총선 투표소 41곳서 득표수 허위 입력”

▲국힘 “‘사망설’ 김정은 방중…대북 정보망 역량 허점 우려”

▲‘후보 등록 전 출마 문자’ 유동균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

▲현재 “마약류사범 2~20년 택배운수 종사 막은 화물차법 합헌”